



Republic of Serbia

교육개선연구원

Korea , Seoul, June 2015



Republic Serbia



세르비아에서 출판되는 교과서



Seul, June 2015.

현 상황

- ▶ 2009년 교과서에 관한 법- 현재 시행 중
- ▶ 자유경쟁 시장
- ▶ 출판사 난립 (70여개)
- ▶ 전 학년 교과서 제공
- ▶ 교사는 다음 학년도의 교과서를 “승인 교과서 카탈로그 (Catalogue of Approved Textbooks)”에서 선택

과거

- ▶ 2009년까지는 1993년 교과서 관련 법이 시행되어 국영 출판사의 독과점을 허용
- ▶ 2000년 정치적 변화 후, 최초의 민간 출판사가 등장
- ▶ 따라서, 시장 자유화의 기초가 마련됨

교과서 승인 절차

- 출판사가 교육부에 교과서를 송부한다.
-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를 교육개선연구원에 전달한다.
- 연구원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.

교과서 승인 절차

- ▶ 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을 국가교육심의회 (National Education Board)로 보낸다.
- ▶ 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, 국가교육심의회는 해당 교과서 승인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제언한다.
- ▶ 연구원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, 해당 출판사는 국가교육심의회에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▶ 승인된 교과서는 차기 학년도의 카탈로그에 기재된다.

교과서 양질의 기준

- ▶ 양질의 기준은 교과서가 승인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며, 해당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.
 - 내용
 - 교육적 및 심리학적 요구
 - 교육적 및 방법론적 측면
 - 언어적 측면
 - 그래픽 요소, 그림, 기술 차원

교과서 내용

- ▶ 기준 1. 교과서 내용은 커리큘럼, 일반 학습 결과 및 교육 기준과 양립한다.
- ▶ 기준 2. 교과서 내용은 특정 과학/분야의 지식의 성격을 대변한다.

교육학적 및 심리학적 측면

- ▶ 기준 3. 교과서는 해당 연령에 적절하며, 학생의 발전을 자극한다.

교육적 및 방법론적 측면

- ▶ 기준 4. 교과서는 명확하고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며, 방법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.

언어적 측면

- ▶ 기준 5. 교과서의 언어는 적절하며 실용적이다.

윤리적 및 교육학적 측면

- ▶ 기준 6. 교과서는 교육목표에 맞는 가치제도의 발전에 공헌한다.

그래픽 요소 및 그림

- ▶ 기준 7. 교과서에 있는 그래픽 요소와 그림은 적절하며 실용적이다.

기술적 차원

- ▶ 기준 8. 종이 교과서의 기술로 읽기 쉽다.



Aleksandar Marinkovic and Dragan Rakita
Advisers/Coordinators

Institute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

Centre for Curricula and Textbook Development

aleksandar.marinkovic@zuov.gov.rs

dragan.rakita@zuov.gov.rs

